

| 기업단위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 확산, 지역·업종 넘어 개별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노사, 기본급 1% 사회연대 위해 기부

사회적 대화 확산, 지역·업종 넘어 개별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 노사, 기본급 1% 사회연대 위해 기부

박종훈 월간 <참여와혁신> 취재팀장

‘상생相生’이란 표현이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강조해 왔다. 그만큼 차이로 인한 갈등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널리 이야기된 만큼 ‘상생’하는 사회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넓게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혹은 산업이나 지역 단위의 차원에서, 좁게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상생연대기금 재단 설립

최근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움직임이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공공부문부터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공공부문 노동계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선진화’, ‘정상화’ 등의 이름을 붙인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조건의 심각한 후퇴라고 규정하고 맞서왔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성과주의 문화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고, 이는 노동계와의 본격적인 마찰을 빚는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5개 산별 조직



▲ 2017년 12월 21일 청와대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공공부문 노조대표자들을 초대해 격려했다.

을 중심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한다. 철도노조 74일 총파업, 금융노조 9.23 총파업, 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이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를 선언했다. 그에 따라 공대위를 중심으로 이미 지급된 1,600억 원 규모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반납해 사회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향후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사업, ▲일자리 매칭과 비정규직 제도개선 연구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 사업 ▲지역사회 소통 및 무료 상담 등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018년 2월 현재 기금 출연은 15개 기관에서 150억 원 규모이다. 구체적인 출연기관은 [표 01]과 같다.

표 01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기관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기관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표 02 주요 대기업 협력사 상생안

고용확대	
현대기아차	2, 3차 협력사 최저임금 인산 대비 500억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두산	협력사 직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지원
삼성전자	협력사 임직원 교육 및 협력사 채용 한마당 개최
경영안정	
삼성전자	5,000억 원 규모 물대펀드로 1~2차 협력사 현금결제
삼성디스플레이	2,000억 원대 물대펀드로 1~2차 협력사 현금결제
현대기아차	1,000억 원 규모 2, 3차 협력사 전용자금 대출 프로그램
SK하이닉스	1,000억 원 규모 현금결제지원 펀드, 600억 원 상당 '원-원' 펀드
LG디스플레이	기술협력자금 1,000억 원으로 무이자 대출
KT	중소, 벤처 협력사 위한 1,000억 원 규모 상생협력펀드
포스코	5,500억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으로 2차 협력사도 지원
복지확대	
SK	2019년까지 150여 개 협력사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SK하이닉스	사내 부속병원 2, 3차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방
LG디스플레이	1년 이상 근무 2, 3차 협력사 직원 차별 없는 의료복지
두산	협력사 직원 명절 선물, 건강검진, 장례서비스 지원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사 직원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사내 어린이집 이용 지원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위한 움직임은 비단 공공부문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기존에는 대기업들이 핵심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2, 3차 협력사들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기조와도 부합한다.

개별 기업 중 노사가 사회연대를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 중 잘 알려진 것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17년 임단협에서 기본급 1%를 사회적 상생을 위해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의 발전이 구성원뿐 아니라 협력사를 비롯해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살린 결과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전 구성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1인 1후원계좌’ 기부문화를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임단협 결과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회사의 구성원이 기본급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도 그만큼을 매칭해 기부금으로 적립해 가는 방식이다.

이 기금은 협력사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존에 후원계좌 기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정목 SK이노베이션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기업 노조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이 구성원 및 사회의 행복과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선례가 없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라며 “찬반투표에 조합원 90% 이상이 참여해 73,57%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회사와 구성원, 그리고 사회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18년 2월 5일 울산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오규택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협력사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SK





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갖기도 했다. 총 43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절반인 21억 5천만 원을 68개 협력사에 전달했다.

대상이 되는 협력사는 설비, 생산 등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를 비롯해, 식당, 청소, 경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하는 전 분야의 협력사가 포함됐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거론된 '사회적 대화'는 중앙 단위의 논의에 국한되는 좁은 의미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특정 일방에게 양보가 강요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 왔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부조리가 곳곳에서 사회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조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폭 넓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각계각층에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과 지역,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안과 의제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